

더불어 숲이 되는



만덕사람들

2008년 6월

창간호

발행·편집 : 만덕사람들, 만덕종합사회복지관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전화 : 332-8004 | 후원 : 북구, 사상구복지전소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www.mdwc07.org

더불어 숲이 되는 만덕사람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의 따스하고,
소중한 소식을 담은 소박한 그릇입니다.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우리는 예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샷바느질로 번 돈, 곰탕집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 수억원, 수십억원을 기부한 사연, 때로는 화장실 청소원이, 또 때로는 시장의 할머니가 그 뒤를 감동적으로 이끈 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으면서 온 재산을 털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회를 위해 내놓은 사람들, 하나같이 위대한 인간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이웃을 위해 이름 없는 정성을 보태는 소박한 시민들,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려는 작은 영웅들, 이들이 우리사회 희망의 근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숲이 되는 "만덕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위해 함께 나누려는 소박한 시민들, 작은 영웅들과 함께 희망을 일구어가는 운동입니다. 일상 속에 스민 나눔의 문화, 그 나눔을 통해 모인 열매들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인위는 뒤로 한 채 우리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보태고 희망을 비추는 세상입니다. 정의가 맑은 강물이 되어 흐르고,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평등함을 누리는 그 사회를 만들어가길 "만덕사람들"은 희망합니다.

"나눔은 끝없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http://www.beautifulfund.org> 아름다운재단에서

“마을신문 창간을 축하하며
마을신문에 바랍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웃 마을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 어르신들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을신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합니다.

- 만덕1동 농협 부녀회 백순련 -



통의 대표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독거어르신 등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을 통해 만덕동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갔으면 합니다.

- 만덕2동 통장 박기숙 -



지역에 따뜻한 소식을 담아내는 착한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소식보다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났으면...

- 만덕복지관 사회복지사 도수경 -



지역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만덕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만덕동 주민 김군한 -



마을 신문이라는 말이 정겹게 들려요. 작은 신문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랄게요.

- 상학초등학교 3학년 박지은 -

주민기자단 모집

만덕사람들에서는 마을 신문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덕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실 분들은 동참해주세요.



만덕이야기

만덕동은 신도시로 인구의 급증으로 1989년 만덕1,2동으로 분동되고, 1990년 만덕3동이 분동되었다. 자연 마을로는 만덕마을, 사기마을, 상리마을, 중리마을, 하리마을이 있었다.



지명유래

만덕동(萬德洞)에 대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에 금정산 기슭인 이곳에 1만여의 피난민이 피난와서 모두 화를 면했었는데, 이에 따라 1만여명이 덕을 입었다고 하여 이 마을 이름이 만덕동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만덕동에는 예부터 기비현(其比峴)=사비현(射比峴)이라는 큰 고개가 있었다. 낙동강연안에서 동래로 통하는 이 고개는 동래지역과 서부경남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개로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였으나 길이 위낙 높고 험하고 숲도 많이 우거진 곳이었다. 이에 따라 이곳은 장꾼들을 노리는 도적떼가 자주 출몰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동래부 관내에서 도둑이 심하기로는 만덕고개가 으뜸이고, 다음은 모너며 고개(송상현공 동상이 있는 고개)였다고 하며 당시의 사람들은 혼자 만덕고개를 넘는 것을 겁내었다고 한다. 전하여 오는 말로는 만 사람이 때를 지어 고개를 넘어가야 온전하기 때문에 '만등고개'라고 하였다 한다. 이 만등에서 만덕이란 이름이 유래되었다고도 전해오기도 한다.

하지만 『고려사』에는 충혜왕의 서자 석기(釋器)의 머리를 깎아 만덕사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만덕사로 추측 된다. 따라서 만덕동이라는 이름은 만덕사가 있던 마을이라는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만덕1동

- 상하산 상계봉을 주봉으로 남향의 산자락마을
- 환경적, 쾌적성이 높고 만덕사지등 문화재와 사찰이 많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
- 만덕 제1,2터널통과 남해고속도로 진·출입의 교통의 요충지
- 1975년 정책이주 지역으로 현재의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1992년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만덕초등학교, 만덕중학교, 만덕1지구대

만덕2동

- 백양산 기슭에 자리 잡아 동래구와 부산진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
- '84년, '90년, 2000년 등 3차례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형성된 주거와 상가 복합 지역
- 지하철 3호선의 개통으로 도심지와 가깝고, 만덕교차로에서 경부 및 남해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으며, 김해공항도 10여분 거리에 있는 등 교통요충지
- 백양초등학교, 백양중학교, 신덕초등학교, 신덕중학교, 만덕고등학교, 북구 디지털도서관,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백양생활체육관,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만덕2지구대

만덕3동

- 만덕1,2동과 덕천1,3동과 경계를 이루는 마을
-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의 주거중심지로 주민편의 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양호한 지역
- 신만덕 중심지의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
 - ▶ 6,544세대(전체의 88%)
- 경제·문화적 중산층 주민이 밀집하여 문화, 복지 등 기대욕구 다양
- 백산초등학교, 부산이노비즈센터, 만덕우체국

우리 마을 보물 찾기

만덕사지 당간지주를 아시나요!

만덕 1터널 입구에 만덕사 절터가 있는 곳이 사기(寺基)마을이다. 절터(寺基)라는 마을 이름에 나타나듯이 대단한 규모의 사찰이 있었던 것 같다. 사기마을 만덕사지 입구에는 돌기둥 같은 것이 우뚝 서있는데 그 것이 당간지주다.



당간지주는 사찰 입구에 설치해 두는 것으로, 절에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이곳에 당이라는 깃발을 걸어둔다. 이 깃발을 매달아두는 길쭉한 장대를 당간이라 하며, 이를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라 한다. 만덕사지 당간지주는 두 기둥 중에서 한쪽 기둥만 남아 있으며, 기둥 옆으로는 당간의 받침돌로 보이는 작은 돌이 놓여 있다. 바깥면에는 가운데에 도드라진 선을 한 줄 새겨놓았고, 안쪽면 꼭대기에는 네모난 홈을 파서 당간을 고정시키도록 하였다. 맨 위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단의 굴곡을 주면서 둥글게 깎아두었다.

각 부분의 돌을 다듬는 솜씨가 인근의 범어사 당간지주와 비교하여 매우 세련되어 있다. 비록 한쪽 기둥만 남아 있으나, 땅위에 드러난 높이가 길어 그 사이에 당간이 놓였다면 더욱 더 웅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덕사가 창건된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고려 전기에 만든 것으로 보이며, 만덕사 옛터의 경계를 정하는데 있어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북구청소년문화의 집 특별 프로그램 소개

청소년영화읽기 '특별한 시선'

- 사업명 : 청소년 영화읽기 '특별한 시선'
- 주 최 : 부산광역시 북구청
- 주 관 :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북구청소년문화의 집
- 사업기간 : 2008년 6월 ~ 11월 1·3주 토요일 (총 8회)
- 장 소 : 북구 디지털도서관(만덕 소재)
- 대 상 : 초등/중등 청소년 30명내외
- * 이 프로그램은 이번 달만 6월 넷째 주 토요일 28일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구 청소년 5:5 축구대회

- 사업명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5:5 축구대회
- 주 최 : 부산광역시 북구청
- 주 관 :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북구청소년문화의 집
- 일 시 : 2008년 6월 14일 오전 09:00~14:00
- 장 소 : 북구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 대 상 : 북구 관내 중/고등학교 참가 희망팀 각 16팀 총 32팀
- 시 상 : 상장 및 부상(문화상품권)
- * 신청장소 : 북구청소년문화의 집
-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www.bkyouth.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작성→팩스(333-0730), 메일(bkyouth@hanmail.net)송부 (반드시 참가 가능여부 전화로 확인)

북구 디지털 도서관 이야기 수레

- * 일 시 : 1차 - 6월 7일 (첫째주 토요일)
2차 - 6월 21일 (세째주 토요일)
- * 시 간 : 오전 11시
- * 장 소 : 도서관 2층 정보문화교실
- * 내 용 : 창작동화, 영어동화, 옛이야기
- * 대 상 : 유아 및 보호자



우리구 생활여건 전국2위 “살기좋은 고장 위상 재확인”

- 지방행정연구원 232개 지자체 조사에서
- 교육 · 주거 · 환경 · 기초인프라 최고등급
- 일간지 등 언론매체 분석결과 집중 보도
- 33만 구민들과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



우리 구의 생활여건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지역생활여건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밝혀진 것으로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우리 구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2006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주거, 환경, 기초인프라 등 생활서비스의 핵심을 이루는 7개 부문의 지표를 조사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구는 7개 부문 중 교육, 주거, 환경, 기초인프라 등 4개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매우 양호)를 복지와 문화 부문에서 '+'(양호)를 받았다.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구의 점수는 28점 만점에 24점으로 전국 2위로 나타났다. 전국 1위로 평가된 서울 노원구와의 점수차는 1점에 불과했으며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서울의 강남구는 우리 구보다 1점 뒤진 23점을 받았다. 부산 지역의 시·군을 보면 해운대구가 6위로 평가된 것을 비롯해 급정구가 17위, 부산진구가 48위, 서구와 수영구가 69위, 동래구와 사하구가 87위로 평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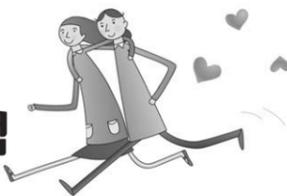
생활여건 전국 2위라는 평가는 구 슬로건을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우선으로 하는 'Hu Nature Bukgu'(휴 네이처 북구)로 정하고 굴뚝 없는 청정미래도시를 추구해온 우리 구가 33만 구민과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백양생활체육관, 북구청소년지원센터,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을 잇따라 개관하였으며 순환웰빙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www.bsnet.or.kr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북구, 사상구 복지 컨소시엄



북구·사상구 복지 컨소시엄은 아동,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각종 사회복지 문제를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자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북구·사상구 복지 컨소시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에서 실시한 2006 테마기획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북구·사상구 복지 컨소시엄은 사단법인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북구, 사상구 22개 기관(부산 북구, 사상구 지역 13개 복지관,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부산한부모가족희망센터,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사회복지관협회, 북부교육청, 북구청, 사상구청, 부산일보사, 한진중공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전화연락 바랍니다.

대표전화 : 888-8888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됩시다.

영찬이는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영찬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잘생기고, 귀여운 학생입니다. 영찬이네는 정부보조금 50만원으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영찬이 그리고 영찬이 형 세 식구가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불편한 몸으로 조금씩 근처 식당 일을 도와 아이들 학원비를 벌려고 하지만, 수입이 많지 않아 두 아이를 키우기에 힘겨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영찬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영찬이가 아이들에게 이유 없이 욕하고 괴롭히면서, 친구들과 영찬가 사이가 나빠진 것입니다. 영찬이조차도 자기가 왜 그렇게 욕하는지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바쁘게 앞 만보고 살아온 어머니는 상심했습니다. 모두가 어릴 적에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한 자신의 잘못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찬이를 만난 상담 선생님은 영찬이가 아직 어리기에 지금 상담과 치료를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으려면 진단비만 20여만원, 지속적인 상담에 매달 2~30만원의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영찬이네는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등마루 산악회에서 매월 희망의 사다리 장학금으로 10만원씩을 지원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또 영찬이를 상담한 선생님께서 매주 직접 미술 치료를 무료로 진행해주시기로도 했습니다. 이제 영찬이는 등마루 산악회와 치료 선생님의 도움으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만덕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운동 후원계좌 227-01-001469-9

※ 희망의 사다리 운동은 북부교육청과 만덕복지관,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든든하게 키워내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 도움이 필요할때 만덕복지관 332-8004

더불어 숲이 되는 사람들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노년의 아름다운 삶

만덕사람들에서는 나눔을 통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별한 기쁨을 즐기고 계신 김관석, 신돌봉 두 어르신을 만나보았습니다.

- ▶ 김관석, 신돌봉 어르신은 만덕2동 덕화 아파트에 살고계십니다. 만덕복지관에서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던 중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는 예전 식당을 운영하실 때 사용하셨던 식판 50여개를 급식 센터에 사용하도록 후원에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 언젠가는 좋은 곳에 쓰여 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 ▶ 뿐만 아니라 두 분은 복지관에서 식당 자원봉사, 복지관 이용 안내 등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 김관석, 신돌봉 두 분의 나눔이 더불어 행복한 만덕마을을 만듭니다.



단신

만덕고등학교 학력신장 프로젝트 추진 등: 부산시교육청 공모 선정

지난 2월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일반 인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학력신장 프로젝트 공모'를 실시한 결과 28개교가 종합계획서를 제출, 1차 서류 심사와 2차 프로젝트 수행계획 발표회 등을 거쳐 최종 15개 학교를 선정했다. 그 중 우리지역 만덕고등학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된 것이다.

만덕고는 수업시작전 시간을 이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독서반, 명심보감반, NIE반, 기수련반, योग반, 음악감상반 등으로 나뉘어 아침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심신 수련으로 학력을 높일 계획이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명문고로 성장할 만덕고등학교를 기대해본다.

북부교육청 "미래 꿈 찾기 활동 지원"

부산시 북부교육청이 지역 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미래 꿈 찾기 활동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북부교육청이 추진하는 선도 사업으로 '미래 꿈 찾기'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좋은 학습 습관'을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진로교육' 지원 사업은 지역 초·중학교 30개교 110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탐색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강사는 북부교육청이 운영하는 상담실의 정모순, 옥정은 전문상담교사가 직접 강의를 하게 된다.

신덕중학교 청소년의 건강과 진로

신덕중학교(교장 이광희)는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부민병원 정흥태 원장의 '청소년의 건강과 진로' 특강을 가졌다.



만덕성당 경로잔치 열어

이웃과 함께하는 만덕성당에서는 지역 어르신 500여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만덕성당의 경로잔치는 올해로 10회째가 되는 우리지역에 대표적인 어르신 잔치입니다.

백양중학교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소나무

- 아름다운재단에서 주최한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에 선정
- 소나무의 뜻은 : 소통과 나눔 그리고 무한 행복
- 만덕동 홀로어르신에 대한 밑반찬 배달, 생신잔치 등 자원봉사 활동

아이무브 오페라단 청소년 갈라 콘서트

- 일시 장소 : 2008. 05. 31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
- 내용 :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코지판투테, 사랑의 묘약, 박쥐, 마술 피리 오페라의 극중 이야기를 해설과 함께 연주



지금 만덕복지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다. 어린이 날 아이사랑 축제, 지역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찾아가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마을 어르신들 봄 나들이 그리고 가족모두가 함께하는 만덕 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만덕복지관은 다양한 행사보다 마을에 꼭 필요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급식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마을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드릴 가슴 따뜻한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벌써 만덕 1동, 2동 부녀회에서 매주 목, 금요일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 문의 : 332-8004 사회복지사 도수경

건강 100세 이야기...

건강 100세 사업에 참여하세요.



우리 마을에는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외롭기만 하면 견딜만한데 건강까지 좋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애처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있는 만덕복지관에서는 어떻게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까를 고민하다가 지역의 보건소, 부녀회, 한국야쿠르트 등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이름을 건강 100세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부녀회와 한국야쿠르트, 백양중학교봉사단은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매일 또는 1주일에 한번 요구르트, 밑반찬 등을 배달하면서 건강을 체크하고, 문안 인사합니다. 보건소에서

는 건강이 좋지 못한 어르신들을 찾아 건강관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복지관 간호사가 데크로 찾아가 기초적인 의료 지원을 합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가시는 병원을 동행해드리기도 하고, 마음에서부터 오는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말벗도 되어드립니다. 또 지역 약국에서는 간단한 진료에 드는 약품을 조금 싼 가격으로 지원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으로 누워계신 어르신들에게는 기저귀를 비롯해 몇 가지 약품, 신선한 과일,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실 손길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작은 물질로 어르신들 섬기실분... 지역의 병의원을 경영하시며 선한 이웃이 되실 분, 시간을 쪼개어 봉사해주시실 분을 찾습니다.

■ 건강 100세 사업 참여 문의 : 만덕복지관(이승훈 사회복지사) T. 332-8004

더불어 숲이되는 희망나무가 되어주세요.



만덕복지관은 만덕사람들과 함께 [약자인지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공생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 위해 더불어 숲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 고통에 처해 계시면 언제든지 도움요청을 하십시오. 혹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은 나눔활동 신청을 하십시오.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만덕종합사회복지관 T. 332-8004
- 복지전화네트워크 T. 888-8888

